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SCRIPTORY

창세기 32 주사 (창 27:21~28:17)
(2016년 7월 24일 - 2016년 7월 30일)
(제 4 권 32 호)

BACK TO THE BIBLE
B2B MOVEMENT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SCRIP+ORY 제 4 권-제 32 호

창간일: 2014 년 11 월 2 일

발간일: 2016 년 7 월 24 일

발행처:  B2B Missions,
800 Roosevelt, Irvine, CA 92620
www.b2bm.org

인용성경

한글성경: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개정

헬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Greek New Testament 4th edition (1993)

히브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1997)

번역 및 해설

편집책임: Steve Kim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DMin Program, Talbot School of Theology)

편집위원: Sean Roh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ie Cho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이 큐티 자료는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1 불 (한국 약 1000 원) 이상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B2B Missions 의 홈페이지 (www.b2bm.org) 를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6 by B2B Mission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인용 또는 전제시 반드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정말로 내 아들 에서인가? (주입)

오늘의 본문 (창 27:21~25)

- (21 절) 이삭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וַיֹּאמֶר יַצְחָק אֶל-יַעֲקֹב)
 가까이 와라, 내 아들이야. (וַיָּשֶׂה-נָּא)
 네가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 볼 것이다, 내 아들이야.
 (וַיִּמְשְׁכוּ בְּגֵי הָאֶתֶּמָּה זֶה בְּגֵי עֵשָׂו אִם-לֹא)
- (22 절)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וַיִּגַּשׁ יַעֲקֹב אֶל-יַצְחָק אָבִיו)
 이삭은 그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וַיִּמְשְׁכוּ וַיֹּאמֶר)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그의 손은 에서의 손이다. (הֲקֵל קוֹל יַעֲקֹב וְהַיְדִים יְדֵי עֵשָׂו)
- (23 절) 이삭은 야곱의 형 에서의 손처럼 그의 손에 털이 많으므로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וְלֹא הִפְרִיזוּ בְיַהֲוֵי יְדָיו כִּי-יְדֵי עֵשָׂו אָחִיו שְׁעָרֹת)
 그리고 그를 축복했습니다. (וַיְבָרְכֵהוּ)
- (24 절) 그가 말했습니다. (וַיֹּאמֶר)
 너는 정말로 내 아들 에서인가? (אֶתֶּמָּה זֶה בְּגֵי עֵשָׂו)
 그가 말했습니다. (וַיֹּאמֶר)
 그렇습니다. (אָנִי)
- (25 절) 이삭이 말했습니다. (וַיֹּאמֶר)
 나에게 가까이 가져와라. (הִגִּישָׁה לִּי)
 내가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이 너를 축복할 것이다.
 (וַאֲכֹלָה מִצֵּיד בְּנֵי לְמַעַן תְּבָרְכֵנִי וַיִּפְּטֵן)
 야곱은 그에게 가까이 가져갔고 그는 먹었습니다. (וַיִּגַּשׁ-לוֹ וַיֹּאכְלֵן)
 야곱은 포도주를 가져갔고 그는 마셨습니다. (וַיָּבֵא לוֹ יַיִן וַיִּשְׁתֵּן)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아슬아슬하게 대화를 이어가고 있던 야곱에게 또 다시 위기가 닥쳤다. 이삭이 야곱에게 가까이 오라고 말했다. 야곱의 목소리를 모를 리 없는 이삭으로서는 아무래도 뭔가 미심쩍었을 게다. 축복을 하기 전에 지금 이 아들이 에서가 분명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했다. 왜냐하면 이삭은 만아들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한 것이니 절대로 그 대상이 바뀌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의 귀에 들려 온 목소리는 만아들 에서의 음성이 아니라 야곱의 음성이었다. 이삭은 에서를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전신이 털로 덮여 있었다 (창 25:25 참조). 반면 야곱은 피부가 매끈매끈하다. 그렇기에 손만 만져 보아도 쉽게 두 아들을 분별할 수 있었다. 야곱은 두려운 마음으로 아버지 이삭 앞으로 다가갔다. 이삭이 야곱의 손을 만졌다. 수북한 털의 감촉이 느껴졌다. 에서가 분명했다.

이삭은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그의 손은 에서의 손이다”라고 말했다. 그 순간 야곱은 ‘휴~’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것이다. 비단 야곱뿐 아니라 이삭 역시도 지금 자기 앞에 앉아 있는 아들이 에서임을 확인하고 안도했을 것이다. 야곱은 지금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 앞을 잘 보지 못하는 게 너무도 다행이라 여겼을 것이다. 눈 먼 아버지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유

일한 방법은 청각이 아니라 촉각이었다. 야곱은 에서의 목소리를 흉내낼 수는 없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매끈매끈한 손은 숨길 수 있었다. 그의 손에는 아버지에게 별미를 만들기 위해 죽인 염소의 털이 붙여져 있었다. 염소의 털이 야곱을 완전하게 에서로 만들어준 셈이다. 이삭은 자신의 촉각에 의거해서 지금 앞에 앉아 있는 야곱을 에서라고 철석같이 믿게 되었다.

“너는 정말로 내 아들 에서인가?”(창 27:24).

이삭의 이 질문은 에서가 맞는지 재확인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정말 에서임이 확실하다는 의미에 더 가깝다. 다시 말해 “너는 정말 내 아들 에서가 맞구나!”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다. 이삭이 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불과했고 그런 합리적 의심을 거쳐 이제는 온전한 신뢰에 이르렀음을 뜻하는 말이다. 야곱은 자신이 정말 자신이 에서가 맞다고 재차 대답했다. 그것으로 모든 검증 과정이 끝났다. 이삭은 한치의 의심없이 야곱을 에서라고 믿었다. 이제부터 야곱은 이삭이 그토록 사랑하는 맏아들 에서가 되었다. 이삭은 만들어 온 별미를 가져오라고 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키운 염소로 어머니 리브가가 정성스럽게 요리한 맛난 음식을 들고 아버지 앞으로 나갔다. 이삭은 야곱이 가져 온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 물론 축복할 때 빠뜨릴 수 없는 포도주도 마셨다. 야곱은 철저히 에서로 위장했고 이삭은 그런 야곱을 에서로 믿었다. 그리고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한다.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아버지 소유의 염소를 잡아 그가죽으로 완벽하게 위장한 야곱이 어머니가 만들어 준 별미를 아버지께 드리고 드디어 축복을 받는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자는 분명 야곱이지만 실제로 야곱은 없다. 오직 이삭 앞에는 에서가 앉아 있을 뿐이다. 이삭은 자신이 시력을 잃기 전에 늘 봐 오던 에서를 상상하며 얼마나 흐뭇해 했을까? 비록 그 얼굴을 더는 볼 수 없지만 이삭의 마음에는 예나 지금이나 오직 에서뿐이다.

이 장면에서 우리의 모습이 오버랩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광경 말이다. 세상의 원리대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오직 하나다. 이 심판대 앞에 서기까지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가 아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을 하고, 십일조를 꼬박꼬박 드리며, 주일 성수를 목숨걸고 지키고, 교회를 위해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했다해도 그런 걸 심판의 기준으로 삼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오로지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다. 그리고 그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했나 보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전 2:2).

하나님의 기준이 바로 우리들 자신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만이 유일한 심판의 기준이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찾듯, 우리도 십자가를 들고 나가야 한다. 그의 희생이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그것만 가지고 나가야 한다. 그것이 신앙이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묵상을 위한 질문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옷입어야 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당신은 그분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갈 준비가 돼 있습니까?

이삭의 축복 (월요일)

오늘의 본문 (창 27:26~29)

- (26 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וַיֹּאמֶר אֱלִיּוֹ וַיִּצְחָק אֲבִיו)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내 아들이야. (וַיִּשָּׂא-נָפֶא וּשְׁקָה-לִי בְנִי)
- (27 절) 그는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췄습니다. (וַיִּגַּשׁ וַיִּשָּׂק-לוֹ)
 이삭은 그의 옷 향기를 맡았고, 그를 축복하며 말했습니다. (וַיְרַח אֶת-רִיחַ בְּגָדָיו וַיְבָרְכֵהוּ וַיֹּאמֶר)
 보라. 내 아들의 향기는 (רִיחַ רַיִם בְּנִי)
 여호와께서 축복하신 들의 향기 같구나. (כְּרִיחַ שְׂדֵה אֲשֶׁר בְּרַכּוֹ יְהוָה)
- (28 절)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을 내게 주시기를,
 (וַיְתַן-לָךְ הָאֱלֹהִים מַטְל הַשָּׁמַיִם וּמִשְׁמַנֵּי הָאָרֶץ)
 또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시기를). (וְרֹב דָּגָן וְתִירֹשׁ)
- (29 절) 사람들이 너를 섬기기를 원하고, (וַיַּעֲבֹדוּךָ עַמִּים)
 나라들이 네게 절하기를. (וַיִּשְׁתַּחֲוּ לָךְ לְאֻמִּים)
 너는 네 형제들의 주인이 되고, (הָיִיתָ גֹבִיר לְאֶחָיִךְ)
 네 어머니의 아들이 네게 절하기를. (וַיִּשְׁתַּחֲוּוּ לָךְ בְּנֵי אִמְךָ)
 너를 저주하는 모든 자에게 저주가 있고, (אֲרַרְיָךְ אֲרוּר)
 너를 축복하는 모든 자에게 축복이 있기를. (וּמְבָרְכֶיךָ בְּרוּר)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리브가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은 이삭은 야곱에게 가까이 와서 입을 맞추라고 말했다. 이삭은 이제 그를 축복할 일만 남았다. 더 이상 그가 에서인지 야곱인지 테스트 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야곱은 여전히 불안했다. 땀 냄새가 폴폴 나는 형 에서의 옷이 진가를 발휘할지 여부가 판가름나는 시간이었다. 야곱은 아직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다. 자기의 목소리는 감출 수 없었지만 손목의 붉은 털로 아버지를 속여 에서로 믿게 하기는 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만의 하나라도 자신에게서 야곱의 냄새가 난다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돼 버리기 때문이다. 어머니 리브가는 이를 알고 깨알같이 세밀한 것까지 신경 써 주었다. 야곱은 단지 매끈한 피부만 걱정했는데 어머니 리브가는 거기에 더해 에서의 옷까지 가지고 나와서 야곱에게 입혀 주었다. 리브가의 선견지명이 옳았음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가까이 다가와서 입을 맞추 달라는 아버지 이삭의 말에 야곱은 용기를 내어 아버지께 다가갔다. 그리고 아버지께 입을 맞추는 순간, 땀내에 물씬 배어있는 에서의 향기가 이삭의 코를 자극했다. 에서의 옷에서는 그만이 가진 체취와 함께 들의 풀을 헤집고 다닐 때 배어든 풀향기, 짐승을 메고 올 때 묻었던 짐승의 향이 더해져 독특한 향취가 났다. 분명 에서였다. 맏아들 에서가 별미를 해줄 때마다 맡았던 그 냄새가 코를 자극했다. 익숙한 그 향취가 오늘따라 유난히 이삭을 기쁘게 했다. 이삭이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맏아들에게 축복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이삭은 에서의 옷에서 풍기는 향취를 맡고 너무 기뻐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외마디 감탄사를 외쳤다.

“보라. 내 아들의 향기는 여호와께서 축복하신 들의 향기 같구나!”(창 27:27).

야곱은 완벽하게 에서로 인정받았다. 그런 그를 이삭이 축복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 드디어 이삭은 야곱을 향해 축복의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이삭 입장에서 분명 야곱이 아니라 에서를 향해 축복하고 있다. 지금 이삭 앞에 앉아 있는 자는 영락없는 에서이기 때문이다. 이 순간 야곱은 사라지고 없다. 야곱은 에서 안에 자기를 숨기고 있을 뿐이다. 이삭은 기쁘게 축복의 말을 하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을 또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사람들이 너를 섬기기를 원하고 나라들이 네게 절하기를...너는 네 형제들의 주인이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이 네게 절하기를...너를 저주하는 모든 자에게 저주가 있고, 너를 축복하는 모든 자에게 축복이 있기를...”(창 27:28-29).

이삭이 한 축복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진다. 그것은 물질적 축복, 세상에서의 권위, 친족내에서 특별한 축복, 그리고 저주권과 축복권이다. 이 축복은 구약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신명기의 주제가 기도하다. 이미 알다시피 아브라함, 이삭으로 내려 온 하나님의 언약은 야곱에 이르러서야 그토대가 완성된다. 아브라함은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았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삭만을 약속의 자녀로 인정했고 이스마엘은 맏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언약에서 제외됐다. 그가 단지 여종 하갈에게서 태어났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인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낳은 아들이기 때문이다. 이삭도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았다. 이들은 둘 다 한 배에서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 아들이다. 당연히 맏아들인 에서가 장자권을 갖고 축복을 받아야 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달랐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태중에서부터 이미 둘째를 언약의 계승자로 일찌감치 확정 지어 놓으셨다. 그 결과 두 아들 중 야곱만이 언약의 수혜자가 된다. 야곱은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들의 몸종 실바와 빌하를 통해 열두 명의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약속의 자녀로서 훗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그 후손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된다. 그들이 이집트를 나온 후 40년째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기 직전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재선포했는데 그것이 바로 신명기다. 그런데 신명기에 기록된 축복과 이삭이 한 축복 사이에는 다른 점이 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선포한 축복은 선행 조건이 전제되어 있지만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복에는 축복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전혀 없다. 신명기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행했을 때 주어지는 조건부 축복이라면 야곱에게 내려진 이 축복은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축복이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 그렇다. 우리는 마치 야곱처럼 어떠한 전제 조건도 없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결과 하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비록 세상에서 물질적 축복이 없고 세상이 부러워하는 힘과 권력이 없다해도, 뛰어난 실력과 능력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한다 해도 괜찮다. 왜냐하면 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것이 진짜 복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의 현실에도 자족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은 원래 누구를 향한 것이었나요? 당신은 어떻게 그 축복을 받게 되었나요?

너는 누구냐? (화요일)

오늘의 본문 (창 27:30~33)

- (30 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고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마자,
 (וַיְהִי כִּאֲשֶׁר כָּלָה יִצְחָק לְבָרֵךְ אֶת־יַעֲקֹב וַיְהִי אָף יֵצֵא יַעֲקֹב מֵאֵת פְּנֵי יִצְחָק אָבִיו)
 그의 형 에서가 그의 사냥으로부터 돌아왔습니다. (וַיֵּשׁוּ אָחָיו בָּא מִצְיָדוֹ)
- (31 절) 그도 역시 별미를 만들어서 그의 아버지께 가져갔고, 그는 그의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וַיַּעַשׂ גַּם־הוּא מְטַעְמִים וַיָּבֵא לְאָבִיו וַיֹּאמֶר לְאָבִיו)
 아버지,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드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저를 축복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יְקַם אָבִי וַיֹּאכַל מִצֵּיד בְּנֹו בְעֵבֹר תְּבָרְכֵנִי נְפֹשָׁה)
- (32 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וַיֹּאמֶר לוֹ יִצְחָק אָבִיו)
 너는 누구냐? (מִי־אַתָּה?)
 그가 말했습니다. (וַיֹּאמֶר)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אָנִי בְּנֶךָ בְּכֹרֶךָ עֵשָׂו)
- (33 절) 이삭이 매우 크게 떨며 말했습니다. (וַיִּתְרַד יִצְחָק חֲרָדָה גְּלִילָה עַד־מָאֵד וַיֹּאמֶר)
 그렇다면 그는 누구냐? (מִי־אֵפוֹא הוּא)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오고, (הֲצִד־צִיד וַיָּבֵא לִי)
 네가 오기전에 그것을 다 먹고 내가 축복한, (그는 누구냐?)
 (וְאָכַל מִכֹּל בְּטָרְם תְּבוֹא וְאַבְרָכָהּ)
 그렇다.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גַּם־בְּרַוְךָ יִהְיֶה)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이삭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말로 야곱을 축복했다. 이로써 야곱과 어머니 리브가가 공모한 야비한 꿈 수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요즘이야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면 법적 효력이 정지되기도 하지만 당시에 는 그렇지 않았다. 한 번 내뱉은 말은 경위야 어찌됐든 반드시 법적 효력을 발휘한다. 그래서 구약 시 대에는 하나님 이름을 걸고 함부로 맹세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었다.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 다가 낭패를 본 이야기는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돼 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도 비슷한 실수를 한 적이 있다. 그는 변변찮은 무 기 하나 없이 가나안을 진격해 들어가 난공불락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그 여세를 몰아가나안 부족 들을 과죽지세로 밀어 붙였다. 그런 이스라엘에 맞서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은 연합 전선을 구축했다. 그런데 기브온 족속들은 이스라엘에 대적하는 대신 피를 내어 화친하는 쪽을 택했다. 그들은 마치 먼 나라에서 온 행인처럼 행색을 꾸며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다. 여호수아는 그들 의 피에 깜빡 속아 그들과 화친하고 맹세까지 했다(수 9:15 참조). 그들의 거짓 행각은 사흘만에 들통 이 났다. 하지만 이미 옆질러진 물이었다. 아무리 속아서 맹세를 했다 해도 그 맹세는 법적 효력을 가

진다. 할 수 없이 이스라엘은 그들을 나무패는 자와 물기는 종으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도록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는 이렇게도 엄중한 것이었다.

잘못된 서원으로 인해 자신의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사람도 있었다. 사사 입다가 바로 그 비극의 장본인이다. 입다는 길르앗과 기생 사이에 태어난 서자였다. 이스라엘관 홍길동인 셈이다. 그는 기생의 소생이라는 이유로 길르앗 본처의 아들들로부터 쫓겨나 거리의 건달들과 함께 살았다. 하지만 그는 용사였던 모양이다.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다. 처음에 입다는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암몬 족속에게 거절 당한다. 그 일이 있는 직후 여호와와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 문제는 바로 그때부터다.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 입다는 하지 않아도 될 맹세를 한다. 그의 맹세를 들어 보자.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 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삿 11:30-31).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호와가 암몬 족속을 입다의 손에 넘겨 주었고, 입다는 대승을 거두었다. 전쟁에 대승을 한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집으로 돌아올 때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 전쟁에서 승리한 아버지를 제일 먼저 맞이해 주었다. 그녀는 입다의 무남독녀였다. 입다는 너무 황당하고 참담한 지경이 되었다. 옷을 찢고 후회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다. 결국 그는 딸을 번제로 드릴 수밖에 없었다.

이삭은 이제 빼도박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약속은 불가역적이다. 아무리 야곱의 행위가 불법적이고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기만한 용서받기 어려운 행위였다 해도 이제 와서 없던 것으로 되돌릴 수는 없다. 이러한 불가역적인 언약은 우리에게 많은 걸 시사한다. 기독교의 복음이 그렇다. 복음은 취소 불가능한 하나님의 은혜다.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뒤집을 수도 없고, 하나님 편에서도 한번 자녀로 삼은 이상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그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신다. 우리들이 삶 속에서 실수를 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어 삶이 엉망이 되어 버렸다 해도 하나님은 결코 당신이 하신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신다. 그리스도인들이 설령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네가 그럴 줄 몰랐다. 나는 네가 정말 율법을 잘 지키며 살 줄 알았는데 정말 실망이구나. 그러니 과거에 내가 한 구원은 취소한다!’ 이렇게 말 씀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은 죄로 인해 힘들어 하는 자녀들을 위로하고 감싸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구원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 절대로 맘 놓고 하고픈 대로 죄를 짓고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자신의 닉네임으로 사용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으로 불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계명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연약한 인간인지라 의도하지 않은 실수를 할 때도 있고, 원치 않는 죄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 갈 수도 있으며, 뜻하지 않게 모함을 받아 힘든 상황을 견뎌야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보호하신다.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하고 변치 않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불가역적인 언약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삶 속에서 어떻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저를 위한 복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수요일)

오늘의 본문 (창 27:34~40)

- (34 절) 에서는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자마자, 매우 격렬하게 울부짖었습니다.
 (כְּשָׁמַע עֵשָׂו אֶת־דְּבָרֵי אָבִיו וַיִּצְעַק צְעָקָה גְּדֹלָה וַמָּרָה עַד־מְאֹד)
 그는 그의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וַיֹּאמֶר לְאָבִיו)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저도요, 아버지. (בְּרַכְנִי גַם־אָנִי אָבִי)
- (35 절) 이삭이 말했습니다. (וַיֹּאמֶר)
 네 동생이 나를 속일 작정으로 와서 너의 복을 챙겼다. (כִּי אָחִיךָ בְּמַרְמָה וַיִּקַּח בְּרִכְתְּךָ)
- (36 절) 에서가 말했습니다. (וַיֹּאמֶר)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הֲכִי קָרָא שְׁמוֹ יַעֲקֹב)
 그가 저를 속인 것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וַיַּעֲקֹבֵנִי זֶה פַעַמַּיִם)
 제 장자 권리를 빼앗았고 (אֶת־בְּכֹרְתִי לָקַח)
 보세요, 이제 내 복을 빼앗았습니다. (וְהִנֵּה עַתָּה לָקַח בְּרִכְתְּךָ)
 에서가 말했습니다. (וַיֹּאמֶר)
 저를 위한 복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הֲלֹא־אֶצְלָתָ לִּי בְרִכָּה)
- (37 절) 이삭이 대답하며 에서에게 말했습니다. (וַיַּעַן יִצְחָק וַיֹּאמֶר לְעֵשָׂו)
 보라,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웠고, (הֲנֵן גָּבִיר שָׁמַתִּיו לְךָ)
 내가 그의 모든 형제를 그의 종으로 주었고, (וְאֶת־כָּל־אֶחָיו נָתַתִּי לוֹ לְעַבְדִּים)
 내가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했다. (וַדִּגְנִי וְתִירֹשׁ סָמַכְתִּיו)
 이제 너에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내 아들아. (וְלָכֵה אֲכֹוֹא מְהָ אֶעֱשֶׂה בְּנִי)
- (38 절) 에서가 그의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וַיֹּאמֶר עֵשָׂו אֶל־אָבִיו)
 아버지께서 빌 복이 한 가지뿐입니까? 아버지. (הֲבָרְכָה אֶחַת הוּא־לְךָ אָבִי)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저도요, 아버지. (בְּרַכְנִי גַם־אָנִי אָבִי)
 에서는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וַיִּשָּׂא עֵשָׂו קוֹלוֹ וַיִּבְךְ)
- (39 절) 그의 아버지 이삭이 대답하며 에서에게 말했습니다. (וַיַּעַן יִצְחָק אָבִיו וַיֹּאמֶר אֵלָיו)
 보라, 기름진 땅에서부터 먼 곳에 네 거처가 있을 것이다.
 (הִנֵּה מְשַׁמְנֵי הָאָרֶץ יְהִיָּה מוֹשְׁבֹתְךָ)
 또한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이슬로부터 먼 곳에, (네 거처가 있을 것이다.)
 (וּמִטַּל הַשָּׁמַיִם מֵעַל)
- (40 절) 너는 네 칼에 의지하여 살 것이다. (וְעַל־סַרְבָּף תַּחֲיֶה)
 너는 네 동생을 섬길 것이다. (וְאֶת־אָחִיךָ תַעֲבֹד)
 그러나 네가 매임을 벗을 때가 왔을 때, (וְהָיָה כְּאִשְׁרֵי תְרִיד)
 너는 그의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릴 것이다. (וּפָרַקְתָּ עָלוּ מֵעַל צִנּוּרְךָ)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자신의 축복을 동생 야곱에게 빼앗긴 사실을 깨달은 에서는 소리 높여 울부짖었다. 너무도 분하고, 황당하고, 억울했다. 그는 격렬하게 울부짖었다. 앞서 말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두 아들이 원수지간이 되어 야곱은 에서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다. 결국 야곱은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게 되는데 그 당시 야곱의 나이가 대략 77 세로 추정된다. 당연히 쌍둥이 형 에서의 나이도 77 세다. 일흔 일곱이나 된 에서가 지금 아버지의 축복을 못 받았다고 울며 불며 떼를 쓰고 있는 장면이다. 하지만 에서가 그렇게 한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고 싶어서라기 보다는 단지 눈에 보이는 장자권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게 애걸복걸 매달리는 아들 에서를 향한 아버지 이삭의 태도는 아주 냉정하다. 물론 이삭의 마음도 무너져 내리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에서에게 이토록 냉정하게 대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미 장자의 축복은 야곱이 받았고 그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개입했음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에서는 동생 야곱이 걱정하고 아버지를 속여 자기가 받아야 할 복을 가로챘다며 또 다시 아버지를 향해 애원한다. 에서는 야곱의 비도덕성을 부각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돌려보려 애쓰고 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가 저를 속인 것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제 장자의 권리를 빼앗았고, 보세요 이제 내 복을 빼앗았습니다... 저를 위한 복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에서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을 지적하며 동생을 폄하하고 있다. 물론 에서 자신도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여 부모에게 근심을 안긴 적은 있지만 그래도 야곱처럼 야비하지는 않다고 생각했다. 또한 장자로서 집안을 이끌어 가는 능력만큼은 누가 보더라도 당연히 동생 야곱보다 나았다. 게다가 자기는 야곱처럼 나이 일흔이 훌쩍 넘은 나이에 어머니 품 안을 벗어나지 못하는 마마보이도 아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야곱이 장자권을 받을 자격은 없었다. 그런데 모든 것은 하나님이 미리 뜻하신대로 이루어졌다. 그들이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둘째를 약속의 자녀로 정하셨다. 이유도 조건도 불문이다. 그냥 하나님 마음이다. 하지만 이삭뿐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장자로서 분명 야곱보다 에서를 더 선호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 이후에 야곱을 따로 훈련시켜서 장자권을 물려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셨다. 누가 보아도 자격 없는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 반대로 에서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박탈당했다. 그가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나, 그가 장자권을 죽 한 그릇과 바꾼 것도 그가 축복권을 빼앗긴 이유가 될 수 없다. 실제로 이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에게 축복하려 했으니 말이다.

이삭은 울부짖으며 매달리는 에서를 보면서 아마도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었다. 그는 냉정하게 에서에게 말한다.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사랑하고 아끼던 아들에게 이보다 더 냉정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다.

“보라,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웠고, 내가 그의 모든 형제를 그의 종으로 주었고, 내가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했다. 이제 너에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내 아들아.”

이삭은 억울해서 울고 있는 아들의 가슴에 오히려 대못을 박고 있다. 그렇다고 포기할 에서가 아니다. 에서는 더욱더 매달렸다.

“아버지께서 빌 복이 한 가지뿐입니까? 아버지. 저를 축복해 주세요. 저도요. 아버지.”

얼마나 간절하게 애원했는지 말끝마다 아버지를 부르고 있다. 야곱에게 주고 남은 복이 있으면 그것이라도 좋으니 축복해 달라고 매달렸다. 이 정도 되면 아무리 냉정한 아버지라도 뭔가 좋은 말을 해줄 법도 할 텐데 이삭은 그러지 않았다. 이삭의 축복은 단순히 한 가문의 장자권과 축복권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민족에 관한 것이며, 나아가 그리스도가 그 계보를 타고 와야 하는 중차대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좌지우지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조금이라도 남은 축복이 있으면 자기에게 달라는 아들 에서에게 이삭은 오히려 저주에 가까운 말을 퍼붓는다. 이 썸되면 정말 이삭이 에서의 아버지가 맞나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보라. 기름진 땅에서부터 먼 곳에 네 거처가 있을 것이다. 또한,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이슬로부터 먼 곳에... 너는 네 칼에 의지하여 살 것이다. 너는 네 동생을 섬길 것이다. 그러나 네가 매임을 벗을 때가 왔을 때 너는 그의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릴 것이다.”

이삭이 에서에게 한 이 말은 야곱에게 한 축복과 비교하면 얼마나 가혹한 것인지 모른다. 기름진 땅으로부터 먼, 하늘의 이슬로부터 먼 땅이 에서가 살 땅이다. 야곱은 하늘의 이슬과 기름이 있고,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가 있을 거라고 축복했다. 또 에서는 동생을 섬길 것이고 야곱은 형제들의 주인이 되며, 어머니의 아들이 야곱의 후손에게 절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이 두 아들의 엇갈린 운명이다.

우리는 여기서 이삭의 냉정함을 함부로 나무랄 수 없다. 성경의 인물들, 특히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들의 생각까지도 다 버려야 했다. 더러는 가혹하게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가야 했다. 이삭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아버지로서의 부정까지도 버려야 했다. 듣기 좋은 말로 에서를 달래지도 않았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 우리는 어떠한가? 자기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진리는 잠시 뒤로 감추고 있지는 않은가? 상대방과 다투는 것이 싫어 비진리와 진리가 뒤섞이는 것을 용인하거나 오히려 동조하고 있지는 않은가? 진리는 어떤 것보다 타협 불가능한 절대적인 것이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한 복음을 대체할 수는 없다. 개인적으로 에서에게 일어난 일은 안타깝기 그지없지만 이삭은 어떤 아픔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지 않았다. 그것이 신앙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 또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진리를 왜곡하거나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려 한 적은 없습니까? 반대로 진리를 위해 불이익을 감수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을 통해 당신은 무엇을 배웠나요?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일 것이다 (목요일)

오늘의 본문 (창 27:41~45)

- (41 절) 에서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복 때문에 야곱을 미워하였습니다.
 (וַיִּשְׂטֹם עֵשָׂו אֶת־יַעֲקֹב עַל־הַבְּרָכָה אֲשֶׁר בְּרָכוּ אֹבְדִי)
 에서는 그의 마음 속으로 말했습니다. (וַיֹּאמֶר עֵשָׂו בְּלִבּוֹ)
 내 아버지의 장례 치를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יִקְרְבוּ יְמֵי אָבְלִי אָבִי)
 그 때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일 것이다. (וְאַתְּהָ אֶת־יַעֲקֹב אֲחִי)
- (42 절) 만아들 에서의 말이 리브게에게 들렸습니다. (וַיִּגַּד לְרִבְקָה אֶת־דְּבָרֵי עֵשָׂו בְּנֵהּ הַגְּלָל)
 그녀는 사람을 보내 그녀의 작은 아들 야곱을 불렀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וַתִּשְׁלַח וַתִּקְרָא לְיַעֲקֹב בְּנֵהּ הַקָּטָן וַתֹּאמֶר אֵלָיו)
 보라,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이고 너에 대한 한을 풀려 한다.
 (הֲנִיָּה עֵשָׂו אֲחִיךָ מִתְנַחֵם לְךָ לְהַרְגֶּךָ)
- (43 절) 그러니 지금, 내 아들아, 내 말을 들어라. (וַעֲתָה בְנִי שָׁמַע בְּקוֹלִי)
 일어나서 하란에 있는 나의 오라버니 라반에게 도망가라.
 (וְקוּם בְּרַח־לְךָ אֶל־לָבָן אֲחִי תְרַנָּה)
- (44 절) 너는 그와 함께 며칠 동안 머물러라. (וַיִּשְׁבֹּתָ עִמּוֹ יָמִים אָחָדִים)
 네 형의 화가 풀릴 때까지, (עַד אֲשֶׁר־תָּשׁוּב תָּמַת אֲחִיךָ)
- (45 절) 너에 대한 네 형의 화가 풀릴 때까지, (עַד־שׁוּב אֶרֶץ־אֲחִיךָ מִמֶּנָּה)
 네가 그에게 행한 것을 그가 잊을 때가 되면 (וַיִּשְׂכַּח אֶת אֲשֶׁר־עָשִׂיתָ לִּי)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너를 그곳에서 데려올 것이다. (וַיִּשְׁלַחְתִּי וְלִקְחֹתִיךָ מִשָּׁם)
 내가 어떻게 하루에 너희 둘을 다 잃겠느냐? (לָמָּה אֲשַׁכַּל גַּם־שְׁנַיְכֶם יוֹם אֶחָד)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야곱이 자기가 받을 축복을 가로챈 일로 에서는 단단히 화가 났다.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연로한데 다 눈까지 멀어 자신과 동생 야곱을 분간하지 못하고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해 버린 아버지다.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축복의 수혜자인 동생을 죽임으로써 자신이 당한 수모를 갚고 집안의 장자권을 되찾겠다고 마음 먹었다. 분에 겨운 에서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게 없다. 이제나 저제나 아버지가 죽을 날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었다.

에서의 모습에서 먼 옛날 가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동생 아벨에 비해 탐과 수교로 가득한 자신의 제사를 하나님은 철저히 외면하셨다. 자신이 드린 제물만 외면하신 것이 아니다. 제물 앞에서 있는 자신에게 눈길 한번 주시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고작 양 한마리 잡아서 기름을 드린 아벨과 그의 제물을 너무도 흡족해 하셨다. 가인의 눈에 비친 아벨의 제사는 자기가 드린 제사와 비교해서도 대체 정성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러니 가인은 자신에게 올 축복을 동생 아벨에게 빼앗겼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인은 단단히 화가 났다. 그는 동생을 죽이려고 결심을 했고, 급기야는 동생을 들

로 불러내어 죽이고 말았다. 그 일로 인해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멀어지게 되었다. 하나님은 죽은 아벨 대신 셋을 주셨고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길을 갔다. 물론 세상에서는 가인의 후손이 더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떠난 그의 삶은 정처없이 떠도는 무의미한 삶이나 마찬가지였다. 지금에서는 그런 가인의 길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다.

에서가 혼잣말로 말하는 것을 리브가가 엿들었다. 밤말은 쥐가 듣고 낮말은 새가 듣는다는 속담이 있다. 그런데 이삭의 집에서는 리브가가 쥐에다 새인가보다. 그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리브가가 다 듣고 있으니 말이다. 리브가는 두 아들을 이대로 두었다간 큰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었다. 리브가는 서둘러 야곱을 불렀다. 그리고 잠시 형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 있으라고 권한다. 리브가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보라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이고 너에 대한 한을 풀려 한다. 그러니 지금, 내 아들이야. 내 말을 들어라. 일어나서 하란에 있는 나의 오라버니 라반에게 도망가라. 너는 그와 함께 며칠 동안 머물러라. 네 형의 화가 풀릴 때까지. 너에 대한 네 형의 화가 풀릴 때까지, 네가 그에게 행한 것을 그가 잊을 때가 되면, 내가 사람을 보내거 너를 그곳에서 데려올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하루에 너희 둘을 다 잃겠느냐?”

일이 점점 더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감지한 리브가는 서둘러 야곱을 피신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 에서의 화가 풀려 마음을 돌릴 때까지 야곱과 에서를 떨어 뜨려 놓는 것이 상책이다. 에서는 성격이 화끈하다. 꿈하는 성격이 아니다. 그러니 아마도 며칠만 지나면 분을 풀고 깨끗이 잊을 것이다. 분명 리브가는 얼마 가지 않아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런 리브가의 피로 인해 야곱은 인생에서 생각지도 않은 전환점을 맞게 된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 아니, 엄밀히 말해서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은 취소될 수 없다. 그렇다면 축복을 받은 야곱의 앞날은 이제부터 장밋빛 탄탄대로여야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이어지는 그의 인생을 보면 별로 그런 것 같지도 않다. 축복은 커녕 길고도 지루한 고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나중에 아들 요셉의 초청으로 칠십 명의 가족을 이끌고 이집트로 들어가 바로 앞에 섰을 때 그가 한 고백이 그의 삶 전체를 잘 설명해 준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백삼십 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창 47:9).

그는 자신의 삶을 ‘나그네’의 삶이고, ‘험악한’ 삶이라 자평한다.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복은 야곱 당대에도 성취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서도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구약 성경 어디를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처럼 강성했다거나, 현대의 미국처럼 풍요로웠다는 말이 없다. 이집트에 시달렸던 사백년 노예의 삶을 벗어나는가 싶더니 이내 사십 년의 광야 생활이 그들을 기다렸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7년 동안 전쟁을 치뤄야 했고, 그 이후 시대도 토착민들과의 전쟁으로 바람잘 날 없었다. 아마도 그들에게 평화가 찾아 온 시기가 있다면 다윗 왕 집권 후반기 얼마 동안과 40여년 간의 솔로몬 통치 시기가 전부다. 그 후에는 남북으로 찢어져 온갖 외세의 침략을 받다가 북이스라엘은 앗수르에 망해 강제로 혼혈의 길을 걸었고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로니아로 끌려갔다. 신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는 더 비참하다. 로마의 식민지로 전락했다가 주후 70년경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역사에서 그 이름이 사라진다. 그 후 약 2000년 동안을 나라없이 전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수많은 핍박을 받았다. 그러다가 1948년에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국가가 회복되

긴 했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지역은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예나 지금이나 지구촌 최고의 분쟁 지역이다. 도대체 야곱이 받은 축복은 다 어디로 가고 아직도 이런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가?

어머니 리브가의 권고로 시작된 이 일이 하나님의 언약안에 있는 야곱에게는 그의 기구한 인생의 시발점이 되었다. 그로 인해 야곱이 겪은 고단한 인생 행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그 누구도 삶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 겉으로 아무리 행복해 보여도 누구나 남 모르는 고민거리를 갖고 산다. 어떤 이는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 우울증을 앓기도 하고, 어떤 이는 생존을 위해 자존심 따위는 아예 접고 살기도 한다. 자식 문제로 밤마다 눈물 흘리는 사람들도 있고, 대학을 나와도 취직을 하지 못해 주위의 시선과 스스로의 자괴감에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고 예외일 수 없다. 그래도 우리에게겐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며 힘들 때마다 우리를 축복하신 그 하나님께 매달린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축복하셔서 고통에서 꺼내 주기는 커녕 도리어 우리를 외면하는 것 같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야곱의 삶에서 벗어나 이집트의 바로 왕처럼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주지 않으신다. 대신 야곱처럼 고난의 삶을 살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며 그분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신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다. 만약 삶에서 이런 훈련을 경험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사생아나 다름없다. 삶이 팍팍하고 힘들 때에도 그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인다면 그것이야말로 성공한 삶이고 축복받은 삶이 아니겠는가?

목상을 위한 질문

하나님을 믿고 난 후 당신의 삶은 세상이 말하는 축복으로 가득한 삶으로 바뀌었나요? 아니면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나요? 당신의 삶에서 겪는 고난을 통해 당신은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그런 훈련이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있나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야곱을 떠나 보낸다 (금요일)

오늘의 본문 (창 27:46~28:9)

- (46 절)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했습니다. (וַתֹּאמֶר רַבִּקָּה אֶל-יִצְחָק)
 제가 헛사람의 딸들 때문에 제 삶이 싫어졌습니다. (קִצְתִּי בְחַיֵּי מִפְּנֵי בָנוֹת חַת)
 만약 이처럼 야곱이 헛사람의 딸들, 이 땅의 딸들로부터 아내를 맞이한다면
 (אִם-לֵקַח יַעֲקֹב אִשָּׁה מִבְּנוֹת-חַת כְּאֵלֶּה מִבְּנוֹת הָאָרֶץ)
 제 삶은 제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לְמָה לִּי חַיִּים)
- (28 장 1 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를 축복하였습니다. (וַיִּקְרָא יִצְחָק אֶל-יַעֲקֹב וַיְבָרֶךְ אֹתוֹ)
 이삭이 그에게 명하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וַיְצַוֵּהוּ וַיֹּאמֶר לוֹ)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לֹא-תִקַּח אִשָּׁה מִבְּנוֹת כְּנָעַן)
 일어나 밧단아람, 네 어머니의 아버지 브두엘의 집으로 가라.
 (2 절) 일어나 밧단아람, 네 어머니의 아버지 브두엘의 집으로 가라.
 (קוּם לךְ פִּדְנָה אֲרָם בֵּיתָהּ בְּתוֹאֵל אָבִי אִמְךָ)
 네 어머니의 오라버니 라반의 딸들 중에서 네 아내를 맞이하라.
 (וַקַּח-לָךְ מִשָּׁם אִשָּׁה מִבְּנוֹת לָבָן אֲחֵי אִמְךָ)
- (3 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길 바란다. (וְאֵל שְׁדֵי יְבָרַךְ אֹתְךָ)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족속이 되기를 바란다. (וַיְבָרַךְ וַיְרַבְּךָ וְהָיִיתָ לְקַהֲל עַמִּים)
- (4 절) 그가 네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기를 바란다. (וַיִּתֵּן-לָךְ אֶת-בְּרַכַּת אַבְרָהָם)
 너에게, 그리고 너와 함께 있는 네 자손들에게, (לָךְ וּלְזֶרְעֶךָ אִמְךָ)
 그래서 네가 머무르는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땅을 네가
 소유하도록, (לְרִשְׁתָּהּ אֶת-אֶרֶץ מִגְרִיךָ אֲשֶׁר-נָתַן אֱלֹהִים לְאַבְרָהָם)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야곱을 에서로부터 한시라도 빨리 떼놓아야겠다는 생각을 한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한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한 말은 야곱에게 한 말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뜬금없이 리브가는 야곱의 배우자문제를 거론한다. 사실 지금 야곱이 잠시 집을 떠나 있어야 하는 이유는 에서의 분노 때문이다. 그런데 리브가는 남편에게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한 말을 들어 보자.

“제가 헛사람의 딸들 때문에 제 삶이 싫어졌습니다. 만약 이처럼 야곱이 헛사람의 딸들, 이 땅의 딸들로부터 아내를 맞이 한다면 제 삶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리브가는 이번에도 에서를 걸고 넘어진다. 리브가는 늘 그랬다. 야곱이 하는 일은 아무리 부도덕한 일이라도 눈 감아 주고 오히려 그것을 더 부추기기까지 했다. 반면, 에서가 하는 일은 모든 것이 못마땅했다. 편애도 이런 편애가 없다. 사실 리브가는 이삭에게 자초지종을 제대로 설명해야 했다. 지금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서 그것 때문에 에서가 많이 화가 났다. 이러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잠시 야곱을 피신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리브가는 그렇

게 말하지 않았다. 야곱이 집을 떠나야 하는 이유는 모두 에서의 잘못된 결혼 때문이다. 정작 잘못은 야곱이 했는데 에서가 다 뒤집어 쓰는 꼴이다.

야곱만 편애하는 리브가의 모습에 불편한 마음이 드는가?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편애를 생각해 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녀가 되는 조건을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다. 구원받은 자라면 누구나 하나님이 여지껏 일방적으로 자기를 사랑해 왔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사랑하실 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해내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실수로 죄를 짓더라도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직접 책임지고 해결하신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예수님의 어깨에 우리의 죄짐을 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우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책임질 수도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 비난은 말형인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다. 이것이 기독교의 원리다. 그렇다고 에서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상실하는 일은 없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실수할 때 우리를 가만 두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이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비난하고 손가락질한다. 그때 우리가 피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편애를 보여주는 지표다. 죄로 인해 힘들고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 지금 당신이 남들 앞에 떳떳하게 나서지 못하는 부끄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가? 그때가 바로 우리를 편애하시는 하나님께 나갈 기회가 된다. 바로 지금 그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묵상하라.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당신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빌 4:6~7 참조).

리브가의 말은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지금 이삭이 거주하는 땅은 이방 땅이다. 이곳에서는 결코 야곱의 배우자를 찾을 수 없다. 과년한 아들을 장가도 보내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는 일이다. 이삭은 리브가의 말을 듣고 야곱을 불러 축복하며 말한다.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일어나 밋단아람, 네 어머니의 아버지 브두엘의 집으로 가라. 네 어머니의 오라버니 라반의 딸들 중에서 네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길 바란다.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족속이 되기를 바란다. 그가 네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기를 바란다. 너에게, 그리고 너와 함께 있는 네 자손들에게, 그래서 네가 머무르는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땅을 네가 소유하도록...”(창 28:1~4)

이삭이 야곱에게 당부한다. 배우자를 맞이하되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는 취하지 말라고 말이다. 에서가 자기 마음대로 가나안 땅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는 바람에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너무 힘들던 터였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처럼 야곱도 아브라함의 고향 친족과 결혼하기를 바랐다. 결혼은 모든 것을 결정한다. 결혼을 하게 되면 여자는 홀몸으로 시집오지 않는다. 반드시 그가 섬기던 우상을 함께 데려오게 된다. 그렇기에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하나님을 떠나는 가장 빠른 길이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왕이 그랬다. 아합이 이세벨과 혼인을 하면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자리는 바알로 대체됐다. 바알을 섬기던 이세벨 때문이다. 이처럼 그 당시 이방 신을 섬기던 가나안 여인과의 결혼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렇게 신신당부를 한 이유도 이를 통해 이미 그 폐단을 절절히 경험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기는 힘들다. 믿지 않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고 주장할 수도 없다. 인간 관계가 그렇게 두부 자르듯 명쾌하게 정리되어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한 권면에서 이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런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아내를 구원할런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고전 7:12~17).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혼에 있어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정말 하나님이 택한 백성, 십자가의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 만약 누군가 하나님을 떠난 자가 있다면 그의 믿음은 원래부터 가짜였다. 그냥 한번 믿는다고 해본 것이 진리가 그 사람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다. 정말로 변화된 사람은 주위 사람에게 동화되지 않는다. 오히려 주위 사람을 변화시킨다. 당신은 어떤가?

목상을 위한 질문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죄로 인해 힘들어한 적이 있지 않나요? 그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실 거라는 걸 믿고 있나요? 그 사실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콩가루가 된 이삭의 집안 (토요일)

오늘의 본문 (창 28:10~17)

- (5 절) 이삭이 야곱을 보냈고, 그는 밧단아람으로 갔습니다. (וַיִּשְׁלַח יַצְחָק אֶת־יַעֲקֹב וַיֵּלֶךְ פְּדָנָה אֲרָם.)
 라반, 아람사람 브두엘의 아들,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버니에게,
 (אֶל־לָבָן בְּוֶבְתְּוֹאֵל הָאֲרָמִי אָחִי רִבְקָה אִם יַעֲקֹב וַעֲשֹׂו)
- (6 절) 에서는 보았습니다. (וַיִּרְא עֵשָׂו)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밧단아람에서 아내를 맞이하도록 그를 그곳으로 보내는
 것을, (כִּי־בָרַךְ יַצְחָק אֶת־יַעֲקֹב וַיִּשְׁלַח אֹתוֹ פְּדָנָה אֲרָם לְקַח־לוֹ מִשָּׂם אִשָּׁה)
 그를 축복하며 그에게 명하여,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을, (בְּבָרְכּוֹ אֹתוֹ וַיְצַו עָלָיו לֵאמֹר לֹא־תִקַּח אִשָּׁה מִבְּנוֹת כְּנָעַן)
- (7 절) 야곱이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께 순종했습니다. (וַיִּשְׁמַע יַעֲקֹב אֶל־אָבִיו וְאֶל־אִמּוֹ)
 그는 밧단아람으로 갔습니다. (וַיֵּלֶךְ פְּדָנָה אֲרָם)
- (8 절) 에서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눈에 못마땅한 것을 보았습니다.
 (וַיִּרְא עֵשָׂו כִּי רָעוֹת בָּנוֹת כְּנָעַן בְּעֵינָיו יַצְחָק אָבִיו)
- (9 절) 에서는 이스마엘에게 갔습니다. (וַיֵּלֶךְ עֵשָׂו אֶל־יִשְׁמָעֵאל)
 그는 본처들 외에 추가로, 마할랏,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 느바웃의 누이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וַיִּקַּח אֶת־מְחֻלַּת בַּת־יִשְׁמָעֵאל בְּוֶבְתְּוֹאֵל אֶחָיו וְגִבְיֹת עַל־נַפְשׁוֹ לוֹ לְאִשָּׁה)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이삭은 야곱의 혼인을 위해 그를 처남 라반이 있는 밧단아람으로 보냈다. 하지만 정작 야곱이 밧단아람으로 간 이유는 혼인보다는 형 에서로부터 화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보내는 사람과 가는 사람의 목적이 이렇게 달랐다. 여하튼 야곱은 정든 아버지집을 떠나 밧단아람으로 갔다. 성경은 야곱을 사위로 맞이할 라반에 관해 매우 친절하게 소개하고 있다. 아람사람 브두엘의 아들,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버니라고...히브리어 ‘라반’ (לָבָן)은 원래 ‘흰색’, ‘정결함’이란 뜻을 가진 단어다. 이 단어가 동사로 쓰이면, ‘희게 되다’, ‘정결케 되다’라는 의미가 된다. 우리가 알고있는 라반은 조카 야곱에게 치사할 정도로 못되게 군 사람이다. 게다가 야곱은 라반의 두 딸과 정식으로 결혼함으로써 그의 사위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과 야곱의 관계는 외삼촌과 조카, 또는 장인과 사위라기보다는 주인과 종에 더 가까웠다. 라반은 야곱을 철저하게蔑視처럼 부려먹었다. 라반이라는 이름과는 달리 야곱이 에서에게 한 짓보다도 더 야비하게 야곱을 여러 번 속인 자다. 역설적이긴 하지만 그 덕분에 야곱은 인생에 관해 배워가며 제대로 훈련받았다. 그런 의미에서 라반은 그 이름대로 야곱을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었을까 싶다.

이삭이 다시 야곱을 축복하고 밧단아람에서 아내를 맞이하도록 떠나 보내는 것을 에서가 보았다.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당부하는 소리에 에서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을 것이다. 결국 또 에서다. 그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 한 후 집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좋지 않은 일은 모두 자기 책임같이 들렸다. 분명한 것은 자신이 받아야 할 축복을 동생 야곱이 야비한 방법으로 가로챈 것 때문

에 집안에 분란이 일어났다. 그러니 이 문제에 관한 한 책임은 야곱에게 있다. 그런데 지금 집안의 분위기는 전혀 반대다. 야곱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에서의 잘못된 결혼 때문이란단다. 기승전결에서 결은 늘 에서다. 도대체 이삭의 집에서 에서는 어떤 존재인가?

성경 독자라면 반드시 에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불과 얼마 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야곱이 가로챈 것이 모든 문제의 발단이였다. 그런데 지금은 그 사실은 온데간데 없고 어느 순간 에서의 결혼이 도마 위에 올라온 것이다. 지금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의 주범은 야곱이고 피해자는 에서인데 지금은 도리어 에서가 야곱으로 하여금 집을 떠나게 한 원인 제공자로 둔갑해 있다. 에서는 이미 수십 년 전에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도대체 이 사실이 야곱이 별인 일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에서로서는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다. 정말 미치고 팔짝 뛸 일이 아니겠는가?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주고 받은 대화는 에서를 두 번 죽이는 꼴이 되고 말았다.

야곱은 아버지 어머니의 말을 따라 밭단아람으로 갔다. 사실 그에게는 이렇게 하는 것 말고는 뽀족한 대안이 없었다. 형 에서를 피해 어디든 도망가야 하는 형편이였다. 얼핏 보기엔 부모님 말에 순종해서 가는 거지만 실상은 목숨을 건지고자 도망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두 아들 중 한 아들이 떠났다. 하지만 지금 집에 남아 있는 에서마저도 마음으로는 이미 부모를 떠났다. 에서는 자기가 데려온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부모님의 눈에 거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삭과 리브가는 에서가 가나안에서 데리고 온 여자들을 사실상 머느리로 대우해 주지 않았다. 그 말은 에서까지도 아들로 대우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느 날, 에서도 집을 나갔다. 이번에 그는 아브라함에 의해 쫓겨난 삼촌 이스마엘을 찾아갔다. 그리고 그 딸들 중에서 추가로 아내를 맞이 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마할랏이였다. 이제 에서는 아예 벗어나 가기로 작정을 한 것 같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으로 내려오는 언약의 계보로부터 확실하게 이탈하기로 마음 먹었다. 그렇게 에서 또한 이삭과 리브가를 떠났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다. 하나님은 그에게 쌍둥이 아들을 주셨고, 이삭의 뜻과는 무관하게 야곱을 언약의 계승자로 선택하셨다. 그 과정에서 아버지 이삭도, 어머니 리브가도 철저하게 배제되었다. 또한 에서와 야곱도 그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했다. 그들이 엄마 뱃속에서 태아 상태로 있을 때 이미 그 결정이 내려졌고, 그들이 태어난 후 칠십 년도 더 지난 시기에 실제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되고 진행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이삭의 가정은 풍비박산이 났다. 축복을 받은 작은 아들은 큰 아들의 위협을 피해 외삼촌 집으로 먼 길을 떠났고, 부모들의 처사에 불만을 품은 큰 아들은 아버지 이삭에게 한을 품고 집을 나간 이스마엘에게로 갔다. 에서는 사실상 부모에게 대놓고 반기를 든 셈이다.

도대체 이삭이 받은 복은 무엇인가? 결혼한지 20년이 되어 쌍둥이 아들들을 낳았다. 둘은 너무도 성격이 달라 형제지간이 아니라 거의 원수지간이였다. 하기사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싸워댔으니 말해 무엇하랴!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던 집안은 결국 이렇게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생각해 보라. 이 정도 되면 이삭의 집안을 정상적인 집안으로 볼 수 있을까? 이삭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의미였을까? 이삭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안에 있는 자의 삶이라고 생각되는가?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딱 그렇다. 분명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그사이에 너무 심한 차이가 있다. 다 같은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인데도 어떤 아이는 너무도 바르게 자라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알아서 척척 하는

가 하면 다른 어떤 아이들은 매번 사고를 치고 일탈을 밥먹듯 한다. 게다가 같이 일탈을 하던 아이들 중에도 어떤 아이는 이내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지만 어떤 아이는 전혀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그 때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적으로 대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럴 때 사람들은 과연 그 하나님을 정말이지 믿고 따를 수 있을까?

이삭은 나이들어 시력을 잃었다. 두 아들조차 분간하지 못해 야곱을 애서로 착각하고 축복하는 결정적 실수를 범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온 집안 식구들이 뿔뿔이 흩어졌다. 솔직히 이런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 접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불편하다. 게다가 성경은 매정하게도 이삭의 삶은 여기까지만 다룬다. 두 아들이 다 떠난 텅 빈 장막에 늙은 부부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다. 그 후에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다. 창세기 35 장 마지막에서 이삭이 180 세에 죽었다는 말만 간단하게 전하고 있을 뿐이다. 게다가 리브가는 언제 죽었는지 기록도 없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 선배의 삶이다. 겉으로 보기에 험난하고 힘든 삶이지만 그 삶 속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우리의 인생이 윤택해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삶이 아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이 꼭 당대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저 우리의 인생 그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면 족하다. 이삭의 삶이 그랬다. 당신은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것이야말로 신앙의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유일한 척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삶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 기준으로 볼 때 이삭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당신의 삶을 돌아볼 때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 축복받은 삶이라고 생각됩니까?